

## 2023 년 6 월 4 일 “여호수아(6) 하나가 전체가 되는 이유”(수 7:1, 10-15)

한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전체가 패배의 징계를 받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.

### [1] 함께 하며 행하신 징계

아간은 여리고 전쟁을 통해 전멸시켜서 바쳐야 할 물건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취했습니다. 헤렘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. 이것은 분명히 한 사람의 잘못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잘못 했다고 말씀합니다(7:1).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합니다.

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입회 하에 패배한 것입니다. 넓게 보면 아간의 일은 이스라엘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는 죄였습니다. 이 사건이 그냥 넘어갔다면 얼마 후에 아간의 흠친 재물과 소유는 주변에 드러났을 것이고, 백성들 사이에는 옳고 그름을 따지며 분열되었을 지 모릅니다.

교훈은 아간의 죄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자성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. 따라서 아이성 패배는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뜻을 갖습니다. 아간이 죄를 지었지만 백성 모두가 성결하게 되어야 합니다(13 절). 길게 볼 때, 성결은 가나안 정복과 함께 하나님의 새창조에 동참하게 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.

### [2] 헤렘을 준수하라

헤렘의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창조의 목적에서 너무 멀어졌으므로 갈아엎으셔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. 전멸하여 바치면 하나님께서 후속처리를 받으신다는 뜻입니다.

이것을 통한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징계/심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. 심판 뒤에는 새 창조 역사의 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.

### [3] 아간의 회개

여호수아는 아간에게 사실대로 자백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(19 절). 이에 아간은 자신의 범주를 고백합니다. 그러나 징벌은 받습니다. 비록 유업의 땅을 받지 못하고 돌무더기 속에서 죽었지만 적어도 그 양심에 숨겨진 죄는 없었습니다.

그의 징벌은 다른 백성들에게 자성하는 기회가 되어 성결의 옷을 입게 하였습니다. 아간의 죄를 통해 보다 명료한 새 영적 생활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. 하나님은 아이성 패배를 전환의 도구로 선택하신 것입니다.

우리 또한 누구나 영적/도덕적으로 실패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. 내 안에 죄가 없다고 말하기 전에 아간처럼 아버지께 진실한 고백을 드리는 것이 축복의 길입니다(요일 1:9).

죄와 실패를 아버지께 고백하며 회개하면, 때로 징계를 하시는 이유는 모두가 성결의 길을 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. 따라서 누구의 죄가 지탄의 대상이 될 때, 비판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보다 나를 돌아보라는 사인으로 받는 것이 바른 태도입니다.

내면의 탐심은 주님께 고백할 때 무력화됩니다. 필요로 인하여 욕구를 느낄 때, 주님께 고백하는 모습이 있고, 스스로 은밀하게 채우겠다는 모습이 있습니다. 이 둘은 판이하게 다릅니다. 전자는 주님과 교제와 대화의 차원이고 후자는 개인적 욕망의 차원입니다.

아간의 교훈을 통해 새 창조를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 탐심이 아닌 필요를 채우는 만족으로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.

### <나눔의 질문>

1.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인해 백성 모두가 징계를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?
2. 내가 필요로 인해 느끼는 욕구가 탐심으로 번지지 않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? 내가 원하는 것을 떠올리며 말씀해 보세요.